

영재 학급을 위한 사이버 상담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정현남 · 김동혁 · 고병오
공주교육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요 약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재 아동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하리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으나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우울증, 신경성 식욕 부진증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재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한편, 개발한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에 대전 제6지구 지역공동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영재 아동들과 학부모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재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을 상당부분 극복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면대면 상담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yber Counseling System for the Gifted Class

Hyun-Nam Chung · kim dong hyu · Byung-Oh Goh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t. of Computer Education

ABSTRACT

It soaks but from 2003 the gifted child whom it is propelling as the enterprise of real national dimension oneself will know and it will do well the case which with the thought which goes wrong it lets to let alone is many but about lower social unsuitable Eung and melancholia, nervous characteristic anorexia cunq with the back the same multi branch problem point occurs with emotional vulnerability of the gifted person. From the gifted people it grasps the emotional vulnerability which occurs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consequently and the gifted person cyber counseling system which does the hazard web which solves a problem point in base plan and it embodies. One side, it applied the gifted child and the parents who are participating to an Dae-jeon 6th area joint the gifted person class in the gifted person cyber counseling system which it develops the result and it analyzed. Emotional vulnerability of the analysis result the gifted child considerable por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e fact that it overcomes, if facing each other it will be able to complement the portion which is insufficient from consultation.

1. 서론

두뇌전쟁, 과학 전쟁의 시대로 돌입한 21세기는 과학 공상영화 한 편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거둘수 있는 시대이다. 그만큼 두뇌 경쟁이 치열해져서 고급 두뇌를 양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고시되고, 2003년 3월부터 전국의 일반 초·중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재의 지적 능력의 중요성 만큼이나 정서적, 사회적 특성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영재의 정의, 판별 방법,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반해 정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적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설령 태어날 때 아주 훌륭한 영재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나 의미있는 사람들이 영재성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제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한채 사장되어 버린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IQ 130 이상의 영재아동 144명을 발굴한 뒤 17년이 지나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발굴되었던 144명의 영재아동 중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아동은 8명, SKY라 불리는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16명, 그밖에 대다수의 아동이 전문대를 가거나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졸업한 아동도 있었다 [1]. 영재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영재들의 정서, 사회적 특성이 지적 성취에 끼친 부정적 영향에 원인이 있다.

영재의 정서적 취약점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그중 내적인 요인으로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빠르기로 발달하여 한 개인 안에서 내적 불일치를 일으키는 비동시성,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며 주로 옥내에서 활동하는 내향성, 영재 아동을 정신적인 과충분적 형태로 표현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예민함과 강렬함,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하는 완벽주의 경향,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에서 오는 과도한 자기 비판,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심 만큼 위험을 피하려는 잠재된 욕구, 자신이 가진 높은 이상주의에 비해 불안정한 자기위치나 제한된 신분

때문에 갖는 실존적 우울감이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자녀가 우수한 능력을 지니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상한 아이'로 비쳐질까봐 염려하는 부모의 양가적 감정, 영재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해 도전과 지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고 정서 및 행동 면에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모범생으로 자랄 것이라는 타인의 기대, 나이에 따라 학년과 친구가 결정되는 사회 속에서 자신과 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교우 관계의 어려움, 자신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를 받고 스스로 위축되는 형제관계, 영재 아동의 재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족과 사회의 지지 및 가치 인정이 있다.

모든 면에서 다재다능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영재 아동은 사회적으로도 알아서 잘 적응하리라 생각하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일수록 위와 같은 정서적 취약점을 상담을 통해 해결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재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정서적 지지 결여, 영재에 대해 양가감정이나 거부감 표현 등은 영재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정서적 취약점이 더 이상 영재아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영재 아동이 지적인 능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해결책은 전문적인 상담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재 아동의 정서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영재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한 영재 상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내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재 아동을 대상으로 공개 상담, 비밀 상담,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외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영재 아동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영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 가정에서의 아동의 태도나 부모님과의 대화, 학교에서 또래간의 관계, 특정 행동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영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영재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 및 그에 대한 개선 방법인 영재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설계한다. 제 4장에서는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구현하고 제 5장에서는 대전 제6지구 지역공동 영재학급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본 연구를 위해 영재의 정의, 국내·외 영재 교육의 현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끝으로 영재 학생들의 정서적 취약성에 대해 기술한다.

2.1 영재의 정의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천재’, ‘수재’, ‘신동’, ‘영재’, ‘특수재능아’ 등으로 다양하다. 천재나 신동은 과거에 주로 쓰였으며, 각각 ‘하늘이 내린 재능’라는 뜻으로 타고난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점을 함축한다면, ‘수재’는 ‘갈고 닦은 재능’의 뜻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이론 뛰어난 성취의 뜻을 나타낸다[2]. 이에 비하여 ‘영재’ 또는 ‘특수재능아’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부터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영재의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의를 선택하는 가는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바탕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그 사회, 시대, 문화가 가치롭다고 여기고 우수한 사람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2.2 영재교육의 목적

우리 나라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교육의 목적을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 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라는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재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

2.3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 관련 연구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에 관한 몇 가지 연구들을 기술한다.

2.3.1 Hollingworth의 연구

영재의 정서, 사회적 욕구의 측면에서 영재아동 상담에 노력을 기울인 최초의 사람은 Leta Stetter Hollingworth이다. Hollingworth는 영재의 내재된

마음에 관심을 둔 최초의 과학자-임상가 모델로서 [3], 그는 120-145 IQ의 적정의 지능을 지닌 아동보다 그 이상의 범위에 있는 영재는 개인적인 문제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지닐 위험이 좀 더 높다고 하였다. Hollingworth는 ‘지능지수 180이상이 아동(Children above 108 IQ) 책에서 영재의 우수한 지능과 미성숙의 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적응상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4]. 그는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머저 인류의 운명이나 문명의 정당성과 같은 높은 단계의 도덕 및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재능아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지 않으면 고립되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2.3.2 Dauber & Benbow의 연구

Dauber & Benbow는 보통의 영재(moderate gifted)보다 우수 영재(highly gifted)가 좀 더 정서 및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지능수준에 따른 취약성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5].

2.3.3 윤여홍의 연구

윤여홍은 임상 장면이 아닌 일반 교육 현장에서 영재학생들에게서 미성숙,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적 장면에서의 부적응, 미성취, 불안 및 우울,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틱현상 등이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다[6].

2.3.4 Colangelo & Zaffran 및 Schmitz & Galbraith의 연구

그들은 심화 영재와 속진 영재 간에 성격적 특성에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즉, 심화 영재는 문제와의 관련성을 확립하려는 능력과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계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인 반면, 속진 영재는 1차적으로 숙달과 새로운 학습의 통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Schmitz & Galbraith는 속진 학습자는 고정된 방식의 학습에 좌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와의 갈등이 많을 수 있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또래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심화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특정의 영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매우 정서적이며 상사력이 풍부하고 내향적이거나 사려 깊거나 하여, 좌절이나 열정, 정려, 이상주의,

화, 그리고 절망감 등의 강한 감정에 민감한 교사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담자나 교사는 영재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별된 상담체계가 필요하며, 개인상담 및 지도에 유의해야 한다[7, 17].

2.4.5. 그 밖의 연구

그 밖의 몇몇 연구에서는 영재와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8], 10대 영재의 자살(중앙일보, 동아일보, 1997년 3월 29일자)이 보고되고 있다.

2.4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

정서적 취약성으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에 대해 기술한다.

2.4.1 내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으로 비동시성, 내향성, 정서적 민감성과 과흥분성, 완벽주의, 과도한 자기 비판,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실존적 우울감을 기술한다.

2.4.1.1 비 동시성

영재의 발달 특성 중 하나는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빠르기로 발달하여 한 개인 안에서 내적 불일치를 일으키는 비동시성이다[9].

이러한 비동시성 특성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쉽게 깨뜨리고, 병리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여러 심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2.4.1.2 내향성

대부분의 영재는 독립적으로 혼자서 일하기를 좋아하며, 주로 옥내에서 활동하는 내성적인 경향이 많다[10]. 영재의 내성적인 경향성은 특히 창의성을 키워주는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부족하여 사회성을 증진시킬 기회가 적고,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직화하고 자기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자기 중심적 성향 때문에 영재 아동과 또래 사이에 긴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11].

2.4.1.3 정서적 민감성과 과흥분성

강렬함이란 대단히 강한 집중력이나 능력, 힘 또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정서적 민감성이란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성으로 예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적 민감성과 강렬함은 개인에 따라 내재화되거나 외현화되어 자신이 가진 재능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운동성, 감각, 지적, 상상, 정서 등의 영역에서 정신적인 과흥분적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거나[12]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거나[13] 감정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 자기 고립의 방법을 쓰는 등으로 나타난다.

2.4.1.4 완벽주의

영재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기대하는 완벽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영재의 완벽주의는 자신이 질적으로 우수해야 한다는 인식과 칭찬이 주는 정적 강화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영재 아동이 보이는 영재성은 다방면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어느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재 아동은 개인이 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면 실패감을 갖게 되고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얻을 수 있다. 즉,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염려와 우울, 성공여부에 대한 과도의 불안에 빠지게 된다[18].

2.4.1.5 과도한 자기 비판

영재 아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동시에 자신의 단점을 지각할 수 있다. 영재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를 상상하며 그에 따라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한다[14]. 그러나 영재 아동이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가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실패감을 맛보게 되고 스스로 이상적 이미지에 집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영재 아동은 추구하는 이상적 이미지의 달성 가능성을 두고 자신에 대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비판을 하게 된다.

2.4.1.6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영재아동은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심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도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욕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며, 주로 미성취 아동이나 강박적인 아동에게서 많이 보인다[13, 15].

2.4.1.7 실존적 우울감

영재 아동은 높은 이상주의를 가지고 보통 그 나이 또래가 겪지 않는 세계관, 인류애, 인생의 의미, 삶의 가치 등에서 의미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영재 아동들은 삶의 존재적 의미와 가치에 의문을 품고 실존적인 우울감을 경험한다[16].

2.4.2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타인의 기대, 또래 관계,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기대, 형제 관계, 부모의 이해 정도를 기술한다.

2.4.2.1 부모의 양육

보통 부모는 나이와 학년에 따른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영재 부모 역시 보통 또래 아동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영재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영재의 부모는 자녀의 우수한 능력에는 만족해 하지만 우수한 능력과 함께하는 영재적 특성-특히 정서적 특성-에 대해서는 불안해한다. 자녀가 우수한 능력을 지니길 바라면서 동시에 '이상한 아이'로 비춰질까봐 염려하는 부모의 양가적 감정은 영재아동 스스로가 자신은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보통 아동과 달리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14].

2.4.2.2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

전형적인 발달 과정을 따르는 아동에 비해, 영재 아동은 자신의 지적 수준에 적합한 교육 경험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같은 나이에 따른 학년, 정해진 교과과정과 영재의 지적 수준에 비해 낮은 과제, 학습자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교수-학습 방법의 교육 환경은 영재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도전적이지 않은 지루한 학교 환경은 학교에 대한 불신, 학습동기 상실, 무력감, 주의력 결핍, 미성취, 낮은 자존감, 우울감, 행동장애 등을 유발한다[17].

2.4.2.3 타인의 기대

지적 성취 뿐만 아니라 정서 및 행동 면에서도 사회에 잘 적응하고 모범생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사회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서는 아이

가 다름수록 비동조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비판이나 거절 받을 가능성이 높다[18]. 그러나 영재의 정서적 특성으로 볼 때 사회의 요구와 타협하는 것이 영재 아동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된다.

2.4.2.4 또래 관계

영재 아동은 흥미나 관심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집단을 필요로 한다. 영재 아동이 자기와 맞는 적당한 또래를 얻지 못하면, 영재는 그 대신에 책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영재 아동은 또래 아동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들고, 그 결과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된다[6, 17].

2.4.2.5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기대

가정은 아동의 성취발달, 창의성, 정서발달 및 사회적 유능감을 도모하거나 축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19] 그러나 영재 아동의 가정 환경이 부모의 교육열망과 성취 기대가 자녀의 재능과 무관하거나 자녀의 성공을 통한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경우, 영재를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보는 경우 등의 잘못된 상태로 나타나기 쉽다. 잘못된 환경은 영재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고, 가정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지 못함으로써 영재 아동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능력과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개인의 정서 및 사회적 특성을 억제시키고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20].

2.4.2.6 형제관계

가족 내에서 영재 자녀의 심리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비영재 자녀는 적응상의 문제를 갖거나 형제 갈등에 휩싸인다[20].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재 아동은 자신의 발전의 한계를 미리부터 제한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2.4.2.7 부모의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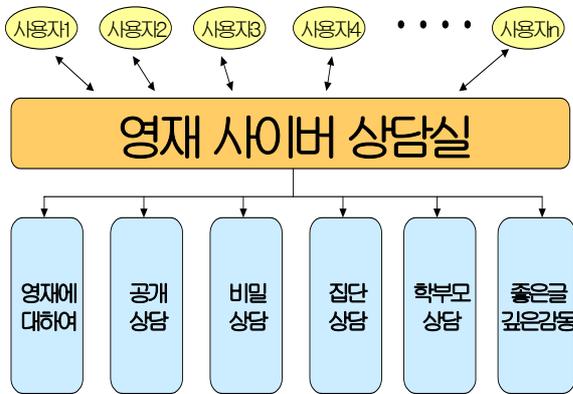
영재 아동에게는 도전적인 과제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특정 영역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부모들이 간과하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자녀의 영재성을 인식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1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재의 정서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한 영재 상담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한편, 개발한 시스템을 대전광역시 옥계지구 지역공동 영재학급(수학, 과학, 정보)의 학생 50여명과 학생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3.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 구축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은 영재에 대하여, 공개 상담, 비밀 상담, 집단 상담, 학부모 상담, 좋은글 깊은 감동의 여섯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3.1 영재에 대하여

영재에 대하여 모듈은 영재의 정의 및 영재 학생의 특성 등 영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 모듈은 영재의 특성과 영재교육 관련 기사로 나뉘는데 영재의 특성은 영재들만의 지적 특성 및 정의적 특성, 정서적 취약성을 알려준다. 영재교육 관련 기사는 영재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및 기사들을 게시판에 올리는 곳이다. 이 모듈은 사람들의 영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외적인 교사는 계속적으로 영재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 한다.

3.2 공개상담

공개상담 모듈은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그 내용은 DB에 저장되며, 교사나 전문상담자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이 모듈은 내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과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로 나뉜다. 내담자의 신분이 밝

혀지는 특징이 있으며 상담 내용이나 상담자의 답글 모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3.3 비밀상담

비밀상담 모듈은 내담자가 공개할 수 없는 상담 내용을 비밀 상담 게시판에 기록하고, 그 내용은 DB에 저장되며, 교사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이 모듈은 내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과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로 나뉜다. 내담자의 이름이 없이 글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내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자가 답글을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다.

3.4 집단상담

집단상담 모듈은 내담자가 상담 하고자 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기록하고, 그 내용은 DB에 저장되며, 전문상담자나 교사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담자가 기록한 상담 내용에 대해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듈은 내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과 외적인 요인에 의한 상담실로 나뉜다. 관리자는 상담주제 및 일시, 대화방 이름을 게시판에 공지하게 되고 정해진 일시에 관리자가 대화방을 만들어 관심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들과 집단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집단 상담 모듈은 서로가 내담자인 동시에 상담자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서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정서적 취약성을 수정해가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3.5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모듈은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영재 학생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며, 내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모듈에서는 주로 영재 학생에게 외적 환경이 될 수 있는 학부모가 그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나 정서적 충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재들의 영재성을 키워주며 정서적 취약성을 극복하게 도와줄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DB에 저장되고 교사나 상담전문가는 게시판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기도 한다.

3.6 좋은 글 깊은 감동

좋은 글 깊은 감동 모듈은 영재 학생의 정서적 특성을 중점으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글과 책을 알리는 곳이다. 이 모듈은 좋은 생각

4.3 집단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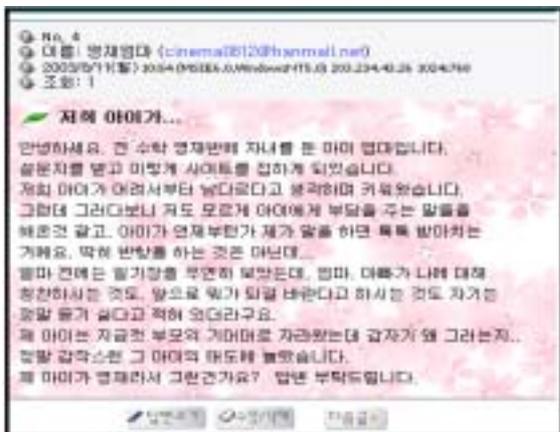
영재 아동들이 고민 거리를 게시판에 올리면 한 달에 두 번씩 운영자가 공통적인 문제점을 선택하여 게시판에 집단 상담 시간과 주제를 공지하고, 채팅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주제로 상담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집단상담 주제는 주로 친구 관계,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 이성에 대한 고민,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었고, 서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대화를 진행하며 생각의 실마리들을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고, 영재 아동이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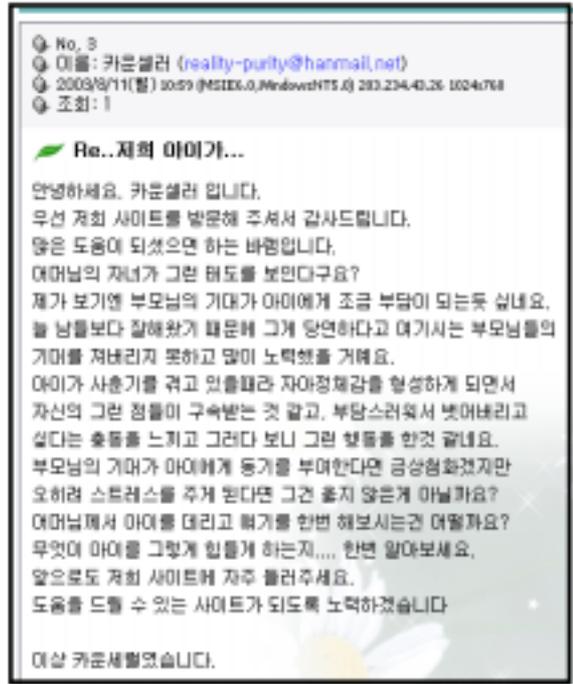
4.4 학부모 상담실

학부모들이 영재 아동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문의 사항 등을 올리고 상담자가 카운슬링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동의 특성을 간과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하여 받아들여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던 경험 등 자녀교육에 관한 상담을 신청해왔다.

학부모 본인의 성취불만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자녀에게 심한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았고, 자신의 아이가 남들보다 빠른 지적 성장을 보이는데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도 상당수였다. 그런데 학부모들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상담자는 이에 초점을 맞춰 답글을 올렸다. 학부모 상담실에 대한 실례를 제시하면 그림 4.5와 그림 4.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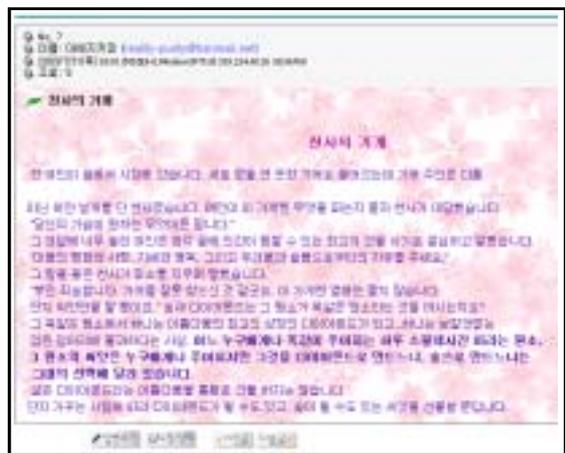
[그림 4.5] 학부모 상담 신청글



[그림 4.6] 학부모 상담에 대한 답변

4.5 좋은 글 깊은 감동

영재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 극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과 아름다운 글, 권장 도서 등을 올릴 수 있도록 게시판 형식으로 구현하였다. 영재 아동은 지식에 대한 감증을 많이 느끼고 부모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보조를 하고 있는 반면 정서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영재 아동들은 이 모듈을 통해 감성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관리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좋은글 깊은 감동에 대한 예시는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좋은 글 깊은 감동

5. 적용 결과

조사대상, 측정도구, 자료의 수집과 처리, 활용 및 분석을 기술한다.

5.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제 6지구 지역공동 영재학급 수확반, 과학반, 정보반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50여명과 그 학생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구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 대상

대상 \ 학급	수확반	과학반	정보반	전체
학생	15	17	12	44
학부모	15	17	12	44

5.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윤여홍(2000), 문성운(2000), G.A. Davis & S.B. Rimm(200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측정 도구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는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검사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학부모 설문지 문항별 구성 내용

항목	내용	문항수
외적 요인	부모의 양육	3
	타인의 기대	1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기대	2
	형제 관계	1
	부모의 이해 정도	3

<표 3> 학생 설문지 문항별 구성

항목	내용	문항수
내적 요인	내향성	5
	정서적 민감성과 과흥분성	6
	완벽주의	5
	과도한 자기 비판	4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	4
	실존적 우울감	4
외적 요인	부모의 양육	2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학교환경	4
	타인의 기대	4
	또래 관계	4
	부모-자녀 관계와 부모의 기대	3
	형제 관계	3
	부모의 이해 정도	4

5.3 적용 전 설문 조사

본 시스템을 대상 학생들에게 적용 전, 영재 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의 정서적 취약성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영재 아동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취약성 정도 측정이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내적인 요인의 취약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가 59.1%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는 40.9%이다. 외적인 요인의 취약성에 응답한 학생과 학부모 역시 52.28%가 그렇다는 응답을 했으며, 47.72%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는 영재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표 4> 현재 영재 학생들이 정서적 취약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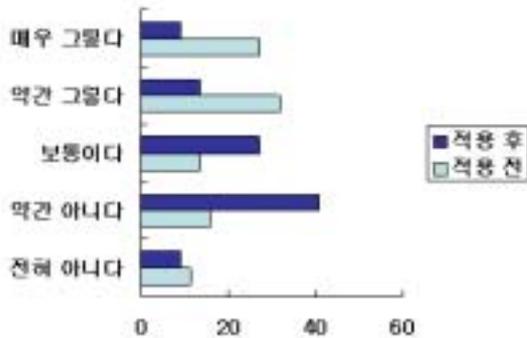
요인	구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명)	5	7	6	14
내적 요인	백분율 (%)	11.36	15.90	13.64	31.82	27.28
		40.9			59.1	
외적 요인	인원(명)	9	4	8	16	7
	백분율 (%)	20.45	9.09	18.18	36.38	15.90
		47.72			52.28	

5.4 적용 후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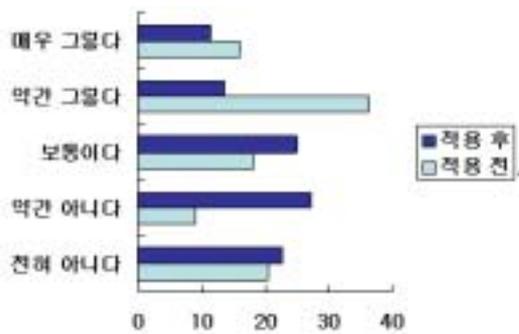
학생과 학부모들이 본인(영재학생) 혹은 자녀들의 정서적 취약성을 알아보게 한 후, 본 연구자가 개발한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적용한 후, 적용 전과 동일한 설문지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와 같다. 재조사한 설문은 적용 전 설문 조사에서 취약성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난 문항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4>에서 내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 정도에 긍정적 응답을 보인 학생과 학부모가 59.1%인 것에 비해,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77.27%가 내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 역시 <표 4>에서 52.28%가 취약성 정도를 강하게 나타낸 반면, 시스템 적용 후 75.00%의 학생이 외적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적용 후 영재학생의 정서적 취약성 정도

요인	구분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백분율(%)	인원(명)
내적 요인	인원(명)	4	18	12	6	4
	백분율(%)	9.09	40.90	27.28	13.64	9.09
		77.27			22.73	
외적 요인	인원(명)	10	12	11	6	5
	백분율(%)	22.72	27.28	25.00	13.64	11.36
		75.00			25.00	



[그림 5.1] 적용 전과 후의 내적인 요인의 취약성



[그림 5.2] 적용 전과 후의 외적인 요인의 취약성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재들에게서 발생하는 정서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첫째, 영재 아동의 정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둘째, 정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설계한 후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셋째, 구현한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재학급 학생들에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적용 결과 사이버 상담 시스템을 통해 영재아동이 상담을 손쉽게 접할 수 있었고, 스스로 정서적 취약성을 인정하며, 여러 유

형의 상담 활동으로 정서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 외부환경인 학부모들의 상담 참여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했으며,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영재 아동의 영재성을 최적의 환경에서 키워줄 수 있었다.

본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운 점 및 개선할 점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한 텍스트 위주의 상담과 함께 실시간 대화형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시간적 제약을 받는 상담인 경우-다급하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갑작스런 질문 사항이 생긴 경우 등-게시판이나 메일 보다는 실시간 대화형 상담이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둘째, 구체화된 상담 사례 및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영재 사이버 상담 시스템의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사이버 상담은 영재 학생들이 손쉽게 상담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내용 및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영재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끝으로 영재 학급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영재인지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 시스템은 추후 타 영재교육 대상자(영재교육원, 영재학교)에게 적용해 보다 객관적인 적용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한순미·조석희, 취학전 영재의 특성 및 부모의 지도실태와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86-41, pp.14~16, 1986.
- [2] 남승인, 초등 수학영재의 특성과 영재의 판별, 한국교육개발원 교사연수자료 pp.2~6, 2003.
- [3] Silverman, L. K. Counseling needs and programs for the gifted.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631~647, Pergamon Press, 1993.
- [4] Hollingworth, L. S. Children above 180 IQ. New York: Arno Press, reprint of the 1942 edition, 1975.
- [5] Dauber, S. L. & Benbow, C. P. Aspect of personality and peer relations of extremely

- talented adolescents. *Gifted Ghild Quarterly*, 34, 10-15, 1990.
- [6] 윤여홍, 영재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관한 임상연구: 정신 건강을 위한 지도, *영재교육연구*, 6, 53-71, 1996.
- [7] Colangelo, N. & Zaffran, R. T. Special issues in counseling the gifted. *Counseling and Human Development*, 11, 1-12, 1979.
- [8] Brooks, R. Delinquency among gifted children.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297-308, John Wiley & Sons, 1985.
- [9] Terrassier, J. C. Dyssynchrony - uneven development.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265-274, John Wiley & Sons, 1985.
- [10] Myers, I. B., & McCaulley, M. H. *Manual: A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85.
- [11]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Ohio psychology Pub. Com., 1982
- [12] Adderholdt-Elliott, M. *Perfectionism : What's so bad about being good?* Minneapolis : Free Spirit Publishing Inc., 1987.
- [13] Rimm, S. B. *Why brigh kids get poor grades: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Crown Publishers, Inc., 1995.
- [14] 윤여홍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p.88, 2000.
- [15] Whitmore, J. R.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vment*. Boston: Allan & Bacon, 1980
- [16] Piechowski, M. M.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giftedness. In N. Colan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285~306. Boston: Allan & Bacon, 1991.
- [17] Schmitz & Galbrith *Managing the social and emotional needs of the gifted*. Free Sprit., 1991.
- [18] Webb. J. T.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525~538 , Pergamon Press, 1993.
- [19] Silverman, L. K. Family counseling. In N. Colangelo, & G. 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307~320. Boston: Allan & Bacon, 1991
- [20] G. A. Davis & S. B. Rimm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학문사, 2001.
- [21] 송인섭 · 이시종 · 이경화 · 최병연 · 박숙희(편역),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학문사, 2001.
- [22] 김지영, 창의성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 수학 영재학급용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교육대학교, 2002.
- [23] 조석희, *내 아이 타고난 영재성 100% 키워주기*, 조선일보사, 2002.
- [24] 베티나매엘러 외, *우리아이 영재인가*, 밝은누리, 2002.